

루돌프 슈타이너의
발도르프학교
교과과정
-미술

슈톡마이어KarStocmeyer

도서출판
프린스
푸른씨앗

Rudolf Steiner's Curriculum for Steiner Waldorf Schools

All rights reserved Korean translation copyright © 2015 by GreenSeed(former Gwacheon Freeschool) Publication. Korean translation rights arranged with Rudolf Steiner's Curriculum for Steiner Waldorf Schools by author, Karl Stocmeyer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발도르프 청소년 네트워크 도서출판 푸른씨앗 소유입니다. 저작권법에 따라 한국 내에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

루돌프 슈타이너의 발도르프학교 교과과정 - 미술

1판 1쇄 발행 · 2015년 7월 25일

지은이 · 슈톡마이어

옮긴이 · 하주현

펴낸이 · 발도르프 청소년 네트워크 도서출판 푸른씨앗

편집팀 · 백미경, 이상아, 최수진

디자인팀 · 유영란, 이영희

번역팀 · 하주현

홍보팀 · 남승희

등록번호 · 제 25100-2004-000002호

등록일자 · 2004.11.26(변경신고일자 2011.9.1)

주소 · 경기도 의왕시 창계동 440-1번지

전화번호 · 031-421-1726

전자우편 · greenseed@hotmail.co.kr

홈페이지 · www.greenseed.kr

ISBN 979-11-86202-04-3 55650

·

루돌프 슈타이너

발도르프학교

교과과정

- 미술

저자 슈톡마이어 Karl Stocmeyer 하주현 옮김

도서출판
푸른씨앗
푸른씨앗

발도르프학교에서는 회화, 조소, 소묘를

담임과정(1학년 ~ 8학년)에서는 주요수업*시간에, 가능하다면 주 2회 오후 수업에서, 상급과정(9학년 ~ 12학년)에서는 공예 집중수업**의 일부로(3주씩 2번, 총 6주간) 다룬다.

여기서는 회화, 조소, 소묘***에 대한 슈타이너의 제안을 연대기 순서(강의가 진행된 시간 순)로 정리했다. 이 세 활동은 크게 보아 하나의 통합체를 이루기 때문에 다른 순서는 실용적이지 않다.

“어린이에게 읽기와 쓰기를 가르치면서 우리는 가장 물체적인 영역에서 수업을 합니다. 산수를 가르치면 이미 상당히 덜 물체적으로 수업합니다. 사실상 영혼정신 혹은 정신영혼을 위한 수업은 음악적인 것, 소묘적인 것이나 그와 유사한 것을 어린이에게 가르칠

차례

발도르프학교에서는 회화, 조소, 소묘를 5

10세 이하의 아이들 45

10세 이후 45

미술 교과과정 제안 51

회화, 조소 소묘 수업의 목표와 내용 60

* 발도르프 학교에서 아침에 담임교사가 100~120분씩 진행하는 수업. 수학, 국어, 역사 등 한 과목을 한 주기(3~4주) 동안 연속으로 진행한다. 독일에서는 토요일에도 수업이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6회 주요수업이 있다.

** 상급과정(9~12학년)에서는 오후 시간에 미술, 공예 등의 과목을 3~4주씩 연속으로 진행한다.

*** 여기서 말하는 소묘는 선을 이용한 예술을 말하며, 형태그리기라고 하는 선그리기 예술과 흑백소묘 모두를 포함한다. 본문에서는 보통 소묘라고 번역했지만 내용에 따라 선그리기로 번역하기도 했다.

때입니다. (《발도르프 교육 방법론적 고찰》* Erziehungskunst) 첫 번째 강의 p.22)

슈타이너는 적당한 사물을 소묘(예: 글자 f는 물고기 fish)하면서 글자 쓰기를 도입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한 다음 이어서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어린이가 소묘적인 것과 회화적인 것을 다루도록 해야 합니다.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소묘적인 것과 소묘적-회화적인 것에서 시작합니다. 음악적인 것 역시 시작해서 어린이가 처음부터 어떤 악기를 다룰 수 있도록 습관을 들이도록 하면, 어린이 안에서 예술적인 감성이 살아납니다.” (같은 강의 p.25)

사고, 감성, 의지가 함께 작용하게 해야 한다는 언급에 이어, 저학년 시기에 예술 활동이 갖는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잘못된**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의지를 반대방향으로 이끌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술적인 방법으로 의지의 강화가 올바르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회화적이고 예술적인 지도가 중요합니다. 음악적인 지도 역시 도움이 됩니다. 삶의 두 번째 주기 첫 시기의 어린이가 권위적인 지도를 위해서는 예술적인 것을 통해서 가장 잘 수용한다는 사실을, 그리

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린이에게서 가장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소묘적으로나 회화적으로 이런저런 것을 종이에 그리게 하면, 어린이가 상상할 수 없이 큰 기쁨을 느끼고, 우리가 어린이에게 가르치려는 것으로 어린이가 저절로 들어서서 성장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단순한 외적인 모방을 모두 도외시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린이를 이전의 문화기로 되돌려 놓아야 하지만, 그 이전의 문화기처럼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수업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다르게 조율된 상태로 어린이를 이전의 문화기로 되돌려 놓아야 합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는 소묘를 하면서 ‘이것이나, 저것을 묘사해야 한다’는 식으로만 머물지 않을 것입니다. 어린이에게 소묘를 하면서 원천적인 형태를 가르칠 것이며, 각을 이렇게도, 또 다르게도 그리도록 가르칠 것입니다. 원과 나선형을 가르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들의 형태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완성된 형태들에서 시작해서 형태 자체에서 어린이의 흥미를 일깨우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같은 강의 p.31~32)

아칸테스 나뭇잎의 전설을 언급한 뒤에 이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교육예술 2: 발도르프 교육 방법론적 고찰> (GA294, 밝은누리) 본문 인용

“그렇게 하면, 인간의 정서를 너무나도 메마르게 하는 끔찍한 것이 마침내 중지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학식이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이것은 자연스럽고, 저것은 부자연스럽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것은 올바르게 묘사되었다’는 등의 판단을 내리는 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부 세계와의 그 유사성은 부차적인 것으로만 빛나야 합니다. 인간 내부에 살아야만 하는 것은 형태 자체와의 내적인 공생이어야 합니다. 코를 그릴 때조차도, 그 코의 형태와 내적인 공생이 있어야만 하며, 나중에서야 비로소 그 코와의 유사성이 드러나야 합니다. 일곱 살부터 열네 살까지의 시기에 내적인 법칙성을 위한 느낌이 외적인 모방을 통해서 절대로 일깨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곱 살에서 열네 살 사이에 발달시킬 수 있는 것을 그 시기가 지나서는 더 이상 발달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의식해야만 합니다. 그 시기에 활동하고 지배하는 힘은 소실됩니다.” (같은 강의 p.33)

그런 다음 슈타이너는 제 때를 놓쳐 하지 못한 것을 다소 불완전한 방법이지만 나중에 보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런 특별한 상황은 수업에 속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소개하지 않는다.

다음은 같은 연속강연(방법론적 고찰) 중 첫 번째 강의에서 발췌한 것으로, 슈타이너는 예술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전체 인간이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지에 대해 말한다.

“여러분은 음악적인 것이나 소묘적인 것을, 소묘적-조형적인 것을 수단으로 이용함으로써 느낌을 지적인 것으로 끌어올립니다. 그것이 올바른 방식으로 발생해야만 합니다. 오늘날에는 특히 예술적인 것이 양성되어야 하는 경우에 모든 것이 두리 뭉실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손으로 소묘를 하고, 역시 손으로 소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어린이를 예술적인 것으로 인도해 가면, 그것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소조적인 것으로 어린이들을 인도하려면, 어린이들이 소조의 형태를 손으로 따르도록 가능한 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린이가 손을 움직이면서 자신의 형태를 느낄 수 있습니다. 소묘적인 것을 할 때에는 어린이가 눈으로, 즉 눈을 통해서 나가는 의지로 그 형태를 따르도록 할 수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소조 형태를 따라 느끼도록 지시하거나, 예를 들어 원의 만곡을 따르는 동안 눈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네가 스스로 네 눈으로 원을 만든다’고 말하는 것이 어린이의 소박함을 절대로 해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린이의 소박함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전체 인간의 흥미를 끌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아랫부분을 윗부분으로, 신경-감각 존재로

이끌어 올린다는 점을 분명히 의식해야만 합니다.” (같은 강의 p.36)

소묘 수업에 대한 슈타이너의 생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앎〉*의 두 번째 강의에서 시작해서 다른 몇 강의를 지나, 토키 강연**으로 마무리되는 하나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면 같은 문제를 여러 다른 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다. 여기서는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앎〉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몇 가지만 발췌하고, 나머지는 직접 읽으면서 스스로의 앎을 깊게 하는 것은 독자들의 몫으로 남겨두겠다.

“그리고 계속해서, 출생 이전으로부터 표상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며, 인간 존재 자체에 의해서 되던져진다고 상상해야만 합니다. 출생 이전 혹은 수태 이전에 여러분이 정신세계에서 실행한 그 행위가 여러분의 신체성에 의해서 되던져짐으로써, 바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표상을 경험합니다.”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앎〉 p.51)

몇 페이지 뒤에서 다음과 이어진다.

“여러분이 오늘 신체적인 인간으로서 표상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내부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출생 이전의 시간에서 나오는 힘, 여러분의 내부에 아직도 영향을 미치는 바로 그 힘으로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 힘이 수태와 함께 정지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직도 계속해서 활동 중이며, 우리 내부에 아직도 항상 비쳐 들고 있는 그 힘으로 우리는 표상합니다. 출생 이전의 것들을 계속해서 생생하게 여러분 내부에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반사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부에 그 힘을 지니고 있을 뿐입니다. 그 힘이 여러분의 반감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표상을 하게 되면, 그 모든 표상이 반감을 만나게 되며, 그 반감이 충분히 강화되면 바로 기억 형성, 기억이 생성됩니다.” (같은 강의 p.56)

사실 이것은 소묘나 회화, 조소에 대한 언급은 아니지만, 1920년의 2장에서 적절한 위치로 필요한 연관이 제공될 것이다.

괴테의 색채론에 담긴 깊은 의미를 설명한 다음, 슈타이너는 〈발도르프 교육 방법론적 고찰〉 3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어린이가 가능한 한 일찍 색채와 접촉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종이의 하얀 면보다 이미 색을 칠한 면에 다른 색을 칠하도록 해서, 색채의 세계에 대한 정신 과학적인 이해에서 비로소 생겨날 수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감각이 어린이 내부에서 일어나

* 〈교육예술 1: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앎〉 (GA293, 밝은누리)

** 영국 데번셔 주에 위치한 도시 토키Torquay에서 1924년 8월12일~20일까지 진행된 7회 연속강연(GA311). 〈The Kingdom of Childhood〉

도록 시도하십시오.” 《방법론적 고찰》 p.68)

이런 방법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한 다음, 계속 이어서 말한다.

“물론 어린이들에게도 기본적인 방식으로 색채의 이런 생동적-내면적인 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순수한 소묘 자체는 이미 허구적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아주 깊이 관찰해야만 합니다. 가장 진실한 것은 색채 자체에서 나오는 감각입니다. 약간 허구적인 것은 명암으로부터 생기는 감각입니다. 가장 허구적인 것이 바로 소묘입니다. 소묘는 그 자체로서 이미 자연 속에서 죽어 가는 것으로서 존재하는 그 추상적인 요소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소묘를 할 때에는, 그 소묘에서 사실은 본질적으로 죽은 것을 그리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의식해야 합니다. 색으로 그럴 때에는 우리가 죽은 것에서 살아있는 것을 불러일으킨다는 의식을 가지고 그려야 합니다.” (같은 강의 p.69)

다음은 지평선의 '선'에 대한 설명 뒤에 한 말이다.

“이렇게 여러분은 자연의 형태가 사실 색채에서 형성된다는 점을, 그래서 소묘는 추상화하는 것이라는 점을 점차적으로 알게 될 것입니다. 자라나는 어린이 안에 이미 그런 것에 대한 좋은 표상, 좋

은 감각이 생겨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어린이의 전체적인 영혼 존재를 살려 내고, 외부 세계에 대한 올바른 관계를 지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같은 강의 p.70)

‘자연 속에 죽어가는 과정으로 존재하는,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미 죽은 것에 속하는 추상적인 요소’를 닮은 소묘의 ‘허구성’에 대한 이 같은 발언은, 지금까지 자주 소묘 전체에 대한 비난으로 해석되었다. 《방법론적 고찰》 세 번째 강의에서 나온 발언으로 교사들은 아이들이 선으로 소묘하는 것 자체를 권장하지 않기에 이르렀다. 사실 슈타이너는 원을 연속된 선으로 그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선-소묘를 빗금 소묘로 바꾸어 그렸다. 따라서 슈타이너가 위에서 인용한 부정적인 언급을 했던 같은 날, 즉 1919년 8월 23일에 선-소묘를 아주 긍정적으로 말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다음 날에도 아이들의 기질과 특별한 관계를 지닌 형태그리기(선그리기)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 번 같은 견해를 피력했다. 이런 긍정적인 언급은 외국에서 진행된 세 차례의 연속강의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들 강의에서 슈타이너가 목표로 한 것은 적절한 소묘 과제를 통해 아이들 안에 구체적인 공간 의식을 일깨우는 것과 대칭, 확대, 움직임과 반-움직임, 반복, 강화 등 형태와 자유 형태 사이의 공간적 관계성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었다. 다음에 소개하는 강의들은 위 발언의 의미를 설

명하고, 교사가 선그리기와 기하 수업을 어떻게 예술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를 소개하는 것들이다.이밖에도 1921~22년 도르나흐 크리스마스 강의*, 일클리 강의**, 토키 강의가 있다. 도르나흐 강의에서는 아이들에게 아름다움에 대한 감각을 이끌어줄 수 있는 연습들을 제시한다. (슈타이너의 소묘를 옮겨 그린 그림 -참나무 잎의 대칭성- 이 책으로 퍼내면서 빗금 그림기법으로 바뀌었는데, 이는 슈타이너의 예술적 의도를 잘못 전달한 것임에 주의하라. 빗금 기법은 선 그리기가 아니라 공간을 채우는데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두 번째 교과과정 강의(일클리 강연)를 보면 대칭에 대한 감각을 일깨우고, 그로 인해 아이들이 자신의 신체를 구체적인 공간으로 경험하게 하는 같은 맥락의 소묘 과제가 나온다. 잠을 자는 동안 에테르체는 낮 동안 수행한 기하학적 운동을 계속 이어간다고 설명한 뒤에, 슈타이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따라서 기하학에서 우리는 보통 올바른 토대라고 여기곤 하는 추상적이고 지적인 작도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 아이들에게 대칭에 대한 감각을 강하게 자극함으로써 외부가 아닌 내적인 지각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의 경우

에 있어서도 우리는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일클리 강연, 아홉 번째 강의)

토키 강연에서도 일클리 강연과 비슷한 과제를 제시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아주 어린 아이들(일클리 강연)이 아니라 8살들을 위한 전형적인 선 그리기 연습이다. 하지만 8살 역시 학교과정에서는 가장 어린 학년에 속한다.

“다음과 같은 연습을, 대략 8세 무렵의 아이들과, 비록 처음에는 다소 서투르겠지만, 해볼 수 있습니다.”

‘죽은’, ‘추상적인’, ‘허구적’ 같은 단어들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오해를 수정하기 위해, 시간 순서에 따른 인용을 잠시 멈추고 선-소묘에 대해 슈타이너가 긍정적인 방향에서 했던 발언들을 인용했다. 다시 연대기 순서로 돌아간다.

〈방법론적 고찰〉 네 번째 강의에서 슈타이너는 1학년의 첫 수업, 그 중요한 사건에 대해 몇 가지 조언한 뒤에 그 시간에 어떻게 아이들을 소묘로 안내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양손에 대해서, 그리고 손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

* GA303, 스위스 도르나흐Dornach 강연 〈Soul Economy〉

** GA307, 영국 요크셔 주 일클리Ilkley 강연 〈A Modern Art of Education〉

기를 한 후에, 어린이가 손의 숙달을 요구하는 것을 하도록 합니다. 그것을 상황에 따라서는 물론 첫 시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그린다(직선을 그린다). 너희들의 손으로 이것을 따라 그리도록 해라!’ 이제 아이들이 그것을 될 수 있는 대로 천천히 따라 그리도록 합니다. 어린이들을 한 명씩 흑판으로 불러내어서 따라 그리도록 한 후에 자리로 돌아가도록 한다면, 그 일이 천천히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업을 제대로 소화하는 것이 여기에서 큰 의미를 지닙니다.” (《방법론적 교찰》 네 번째 강의 p.91)

이어지는 단락에서는 직선과 곡선에 대해 그리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회화를 도입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붓**으로 물과 물감을 섞은 후 흑판에 붙인 흰 종이에 작은 노란 면을 그립니다. 여러분이 작은 노란 면을 그린 다음에 다시금 어린이 한 명씩 노란 면을 따라 그리도록 합니다.” (같은 강의 p.92)

그런 다음 교사는 노란 면 사이에 파란 면을 칠하고, 초록 면 역시 아름답게 정렬해서 칠하여 아이들이 한쪽에서는 노랑-파랑을, 다른 쪽에서는 노랑-초록을 경험하게 한다. 이처럼 학교 교육을 시작한 직후에 아이들에게 원형적인 형태를 소묘하고, 원형적인 색깔

의 ‘화음’을 칠하는 기초연습을 준다. 나는 여기에 음악에서도 적절한 연습을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이고 싶다. 다섯 번째 강의에서도 다시 한 번 아이들이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밟아야 하는 기본 연습에 대해 설명한다.

“**우선** 여러분께서 크레용과 물감으로 하는 연습을 한동안 계속하셨다고 가정합니다. 쓰기를 배우기 전에 소묘적인 것을 특정하게 실천하여서 소묘에서 쓰기가 나오도록 하는 것은 올바른 토대를 지닌 수업을 위해서 절대적인 필수 사항입니다. 또 다른 필수 사항은 우선 필기체의 읽기에서 다시금 인쇄체의 읽기를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소묘에서 쓰기로의 이행, 쓰기에서 필기체 읽기로, 필기체 읽기에서 인쇄체 읽기로의 이행을 찾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저는, 이미 쓰기에 필요한 소묘적인 요소를 통해서 곧은 선과 굽은 선의 형태를 조금은 그려 낼 수 있는 수준으로 어린이를 가르쳤다는 점을 전제합니다.” (같은 강의 p.108)

이어서 쓰기 수업에 대해 말하는데, 흥미롭게도 쓰기를 소묘 수업의 일부이자, 선그리기의 일부로 보고 있다. 네 번째 날 오후, 연수 참가자의 산수 수업 발표에 이은 토론시간에 슈타이너는 다음과 같은 언급을 한다.

“**선**생님은 왜 어린이들의 경우에 입체에서 시작한 다음에 면으로

건너가기를 선호하십니까? 아시다시피 공간성은 일반적으로 조망하기가 어렵습니다. 입체를 조망하기란 무엇보다도 어린이들에게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공간에 대한 아주 희미한 표상 외에 다른 것을 어린이에게 가르치기란 쉽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입체를 표상하도록 어린이에게 기대한다면 오히려 어린이의 상상력이 손상됩니다.

선생님께서서는, 입체는 구체적이고 선은 추상적이라고 가정하십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삼각형은 이미 완전히 구체적이고, 그 자체로서 공간 속에 존재합니다. 어린이는 강하게 평면적으로 봅니다. 어린이가 삼차원으로, 깊이의 차원으로 개입해 들어가야 한다면, 그런 것이 어린이에게는 폭력적입니다. 입체를 표상하기 위해서 어린이가 상상력을 적용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기 전에 이미 그 상상적 표상에 대한 요소를 지니고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면체를 표상할 수 있기 전에 이미 선과 삼각형을 표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삼각형에 대한 실제적인 표상을 지니는 편이 더 낫습니다. 삼각형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사물입니다. 그것은 입체에서 나온 추상이 아닙니다. 기하학을 먼저 입체학으로 가르치지 않고, 형태와 그 사이에 놓인 평면에 대한 학문으로서, 평면학으로 먼저 가르쳐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린이가 이해력을 기꺼이 조준하려는 것을 그런 평면 기

하학이 지지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아주 바람직합니다. 기하학과 소묘 수업의 연결을 통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삼각형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오래 기다릴 필요가 없이 어린이가 기하학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그대로 따라 그리도록 해야 합니다.” (《세미나 논의와 교과과정 강의》* 네 번째 세미나 논의 p.70~71)

슈타이너는 어린이의 공간 의식이, 적어도 1학년엔 막 입학했을 때는 얼마나 제한되어 있는지를 설명한 다음에 위의 말을 덧붙였다. 하지만 마지막 문장에서는, 심지어 그 나이의 아이들도 도형을 파악하고 눈으로 보는 것을 따라 그릴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외부 사물을 따라 그리라는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훨씬 학년이 올라가서 엄격하게 미학적이고 예술적인 태도를 요구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그런 작업을 피하기를 원했다. 슈타이너는 아이들이 권위의 존재인 교사가 이끌어내는 것을 모방하기를 원했다. 이를 통해 아이들은 교사가 그들을 위해 창조한 것을 모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적 가치가 있는 도안이나 형태만을 모방할 뿐, 외부에 존재하는 고정된 사물은 모방의 대상이 아니었다.

* 〈교육예술 3: 세미나 논의와 교과과정 강의〉 (GA295, 밝은누리)

다음은 교사들과의 컨퍼런스*에서 나왔던 말로, 회화 및 소묘 수업을 위한 교육적 과제를 교사가 구현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교실에서 진행된 수업 보고를 듣고,

“색연필보다는 수채 물감을 이용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크레용(오일파스텔)도 가능합니다.” (1919년 12월 22일)

어려움이 있는 한 소년에 대해,

“그 소년에게는 선이 이리저리 꼬이다가 다시 풀리는 복잡한 문양을 그리게 해야 합니다. 소묘에서 시작하십시오.” (1920년 1월 1일)

조소에 대해,

“아이들이 본래의 사물에 대한 아무 독창성 없는 모사품을 만드는 것을 권장하지 마십시오. 관찰을 하게 해야 합니다.” (1920년 1월 1일)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에 대한 질문에,

* 첫 번째 발도르프 학교에서 교사들과 수시로 진행했던 교육 토론회를 말한다. (GA 300a, 300b, 300c) 〈Faculty Meetings with Rudolf Steiner 1,2〉

“대체로 정신성에 대해 경향성을 타고난 아이들은 양손잡이라는 것이 밝혀질 것입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경향성을 지닌 아이들은, 만약 왼손과 오른손 모두를 이용해서 글씨를 쓰도록 강요한다면 미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른손잡이가 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의 물질적인 시대에 아이들에게 (역지로) 왼손을 사용하게 하면 백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적이거나 논리적인 작업에 몰두하는 한에서 아이들에게 오른손과 왼손을 번갈아 쓰게 하는 것은 해로운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소묘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는 양손을 모두 이용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20년 6월 14일)

1920년 슈투트가르트 강연에서는 다음의 수수께끼 같은 말이 나온다.

“여기서 영혼과 신체 사이의 아주 실제적인 상호관계가 일어납니다. 생후 일곱 번째 해에 영혼은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작용을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신체 속에서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작용합니다. 이 시점에서 신체 속에 영혼의 힘으로 새롭게 존재하게 된 힘이 작용하기 시작하고, 7년째 되는 해부터 그 힘들은 다음 육화까지 계속 이어서 활동합니다. 그러면 신체에서 위쪽으로 방사되는 모든 것이 되밀려나고, 반면 머리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힘

은 억제됩니다. 따라서 이갈이가 진행되는 시기 동안, 가장 맹렬한 전투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려는 힘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려는 힘 사이에서 벌어집니다. 이갈이는 이 두 종류의 힘, 즉, 나중에 아이에게서 이성적 논리와 지적인 힘으로 드러나게 되는 힘과 특히 소묘, 회화, 쓰기에서 사용되어야 하는 힘 사이에서 벌어지는 대립의 신체적 표현입니다. 우리는 소묘에서 쓰기를 발달시킬 때 위로 솟구치는 힘을 이용합니다. 이 힘이 진정으로 향하는 것은 조소적 형성력, 소묘 등등 속으로 넘어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1920년 9월 15일, GA302a 두 번째 강의)

여기서 말하는 소묘, 회화, 쓰기에서 사용하는 힘은, 슈타이너가 보통 ‘형성력’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그가 말한 음악적 힘의 대척점에 있다. 어떤 교사가 아이들이 수채화로 형태를 만드는 것을 아주 힘들어한다고 하소연하자, 슈타이너는 아주 중요한 답변을 한다. “**분**필을 지나치게 권장해서는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아직 그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지만(아직 관련 교과과정을 정리하지 않아서), (각 학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윤곽을 잡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먼저 저학년 교과과정이 질서정연하게 자리 잡을 것입니다. 물론 다른 학년(위 학년)에 대해서도 동일한 일을 하겠지만(큰 학년이 최근에야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내용을 아

이들 나이에 맞게 조금씩 응용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저학년에서) 아이들 안에 색채에 대한 내적인 느낌과 색채의 세계에 대한 경험을 일깨우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아이들이 동화에 대한 경험을 통해 색채 세계의 삶에 대한 느낌을 갖게 될 것입니다.” (1920년 11월 15일)

그 교사는 이 대답이 불분명하다고 느끼고, 아이들에게 형태, 명확한 모티브를 주어야 한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슈타이너는 지금까지 회화에 대한 모든 생각을 송두리째 뒤집어엎는 놀라운 대답을 한다.

“여러분이 아이들의 환상을 활동하게 한다면 아이들은 형태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색에서 형태가 자라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색채의 언어로 아이들에게 이야기 해야 합니다. 아이들과 작업을 할 때 그들이 ‘여기 콧대 높은 보라가 있고, 그 바로 옆에 건방진 작은 빨강이 있지. 모두가 겸손한 파랑의 어깨 위에 앉아있단다.’와 같은 말을 이해하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흥미진진한 수업이 될지 생각해보십시오.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색채는 영혼을 형성합니다. 색채가 영혼을 움직이게 하십시오. 우리가 색채 속에서 떠올리는 모든 것은 ‘오십’ 가지 다른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920년 11월 15일)

슈타이너는 학생들의 나이에 따라 알맞게 변형해야 하는 이 첫 단계에서, 학생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외부 사물이나 장면을 있는 그대로 따라 그리게 하지 말고, 그림의 주제가 '건방진 작은 빨강'과 같은 감정 영역에서 생겨나게 하라고 제안한다. 또한 아이들이 초기 단계부터 색채가 어떻게 공간을 창조하는지, 파랑이 아주 먼 곳에서 생겨나는 것과 다르게 관찰자를 향해 다가오는 빨강 등을 경험하기를 원했다. 학급에서 다른 아이들의 그림을 함께 감상할 때 아이들은 하나의 주제를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그릴 수 있음을 경험한다. (오십 가지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감정 영역에 뿌리를 둔 그림은 그 감정을 공간 속으로 꺼내놓을 때 '객관화'된다.

슈타이너는 계속해서 말한다.

“여러분은 예를 들어, ‘여기 빨강이 파랑을 통해 엿보고 있어’라고 말한 다음 아이들에게 그 색을 종이 위에 직접 칠하게 함으로써, 아이들을 색채 속에 살게 해야 합니다. 삶의 많은 부분을 그 안에 담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자극하는 것은 아이들을 일종의 무거움, 늘어짐에서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시대에는 색채에 대한 이런 느낌을 개발하고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음악의 요소를 자극할 것입니다.” (1920년 11월 15일)

지금까지 회화의 첫 단계에 대해 아주 많은 언급을 했다. 제대로 이해했다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회화 주제에 관한 문제에 답을 얻을 것이다. 두 번째 단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아이들은 먼저 원색과 혼합색이 공간 및 형태와 관련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 (위에서 말했던 ‘객관적’인 회화) 그랬을 때만 세 번째 단계에 도달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외부 세계를 주제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전적으로 색채 요소에서 그림을 구성하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선그리기(소묘)에 대해 했던 말도 아이들을 위한 회화 수업의 경우처럼 시사점이 많다. 한 교사가 소묘도 (회화와) 비슷한 방식으로 훈련해야하느냐고 질문하자 슈타이너는 이렇게 대답했다.

“기하 작도를 제외하고는 선-소묘를 이런 식으로 연습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다른 종류의, 즉 빛과 어둠의 양극성을 이용한 소묘입니다. 이런 면에서 9학년들은 아직 그다지 많은 발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모든 방법을 이용해야 합니다.” (1920년 11월 15일)

1921년 9월 11일, 10학년의 물리학 수업에 대한 토론 후에 슈타이너는 다음과 같은 말을 덧붙였다.

“나는 바라발 선생님 연구*의 중요성을, 소묘를 다루어야 하는 모든 교사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언급했습니다. 바라발의 연구는 미학에 있어서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모든 교사가 그것을 철저히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 공부를 통해, 특히 수공예 수업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옷깃, 허리띠, 소매 올리는 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이해하는데 분명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라발의 연구와 같은 논문은 모든 발도르프 교사들에게 근본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수학적 사고가 표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훨씬 더 넓은 측면으로 확대시킬 수 있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 형태와 모양을 위해 고안한 것을 색채에, 심지어 소리의 세계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소리에 관해서는 제가 퀴르쉬너와 바이마르 판으로 출간한 괴테의 음향학 개론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전집에는 엄청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색채론 역시 같은 방식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1921년 9월 11일)

형태의 소묘에 관한 바라발의 책은, 같은 계열 과목에 대한 근본적인 개념을 갖게 해주기 때문에 꼼꼼히 읽고 공부해야 한다. 바

* 첫 번째 발도르프학교의 교사였던 헤르만 폰 바라발Hermann von Baravalle이 쓴 <수학과 과학 수업에 관하여Zur Paedagogik der Mathematik und Physik>를 말한다.

라발은 곡선을 이용해서 면과 공간을 명확히 구분한다. 곡선이 가진 미적 매력을 통해 공간에 대한 진정한 이해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의 바탕에 깔린 근본 원리이다.

1921~22년 도르나흐 강의에서도 1학년의 첫 수채화 수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수많은 잠재력을 지니고 학교에 옵니다. 아이들은 내적으로 타고난 조각가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들의 보편적 적성에서 이 재능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다른 잠재력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로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라도 아이들에게 종이 위에 색깔로 온갖 것을 시도해보게 해야 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아이들을 색채 세상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얀 면을 눈부신 색채로 칠하도록 내버려두었을 때 아이들이 어떻게 색의 본성을 파악해나가는지를 관찰하면 정말 흥미롭기 그지없습니다. 언뜻 보기에 하얀 면을 엉망진창으로 칠하는데, 그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모든 얼룩과 자국에서 우리는 색채의 세계에 대한 아이의 타고난 잠재력의 결과로 인한 색채 조화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아이들이 시중에서 판매하는 ‘아동용 물감 상자’에 들어있는 딱딱한 색채 덩어리로 칠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방법은 대

단히 해로우며, 심지어 예술적으로도 그러합니다. 물감은 반드시 물이나 그에 준하는 다른 재료로 녹여서 미리 병에 담아 놓은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색깔에 대해 내적이면서 친밀한 관계를 발달 시켜야 하기 때문으로,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 있어 더욱 그러합니다. 팔레트에서 직접 뽀뽀한 물감을 찍어서 쓸 때는 색채에 대한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없습니다. 물감을 물에 타서 병에 담아 놓은 것을 사용할 때만 그런 관계가 발달될 수 있습니다.

회화 수업시간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렴, 너의 그림에 아름다운 부분이 있단다. 너는 중앙에 작은 빨간 면을 칠했고, 이것을 둘러싼 다른 모든 색깔이 빨강과 아주 잘 어울리는구나. 그 다음에 칠한 다른 색도 그 빨간 면과 함께 잘 어우러진단다. 이제 색을 바꿔서 해보렴. 빨간 면을 그렸던 자리에 이번에는 파란 면을 칠하는 거야. 그리고 다른 색깔들을 파랑에 맞게 차근차근 진행 해보렴. 중앙에 빨강이 아니라 파랑을 그려서 말이야.’ 먼저 아이들은 이런 연습으로 말할 수 없이 큰 자극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들은 색깔 자리 바꾸기 연습을 하면서(필요하다면 교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전체 세계와의 내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방향에서 아주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교사는 아무리 불편하다하더라도 언제나 주위에서 구할 수 있는 적절한 재료로 온갖 형태를 만

들어내도록 아이들을 격려해야 합니다. 물론 지나치게 더럽고 엉망진창이 되는 것은 피해야 하지만, 아이들은 이런 창조적인 활동에서 그저 깨끗하고 단정한 상태에 머무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얻습니다. 분명히 몹시 귀찮고 힘들겠지만, 엉망진창이 되도록 내버려두었을 때 아이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큼니다. 다시 말해서, 특히 어린 시절에 예술적인 요소를 경험하는 것은 진정으로 귀한 경험이 됩니다.” (1921~22년 도르나흐 강연)

〈교육의 정신적 토대〉*에서 슈타이너는 사고의 표상이 머릿속에 박혀버린 아이들과 그림 그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한다.

“모든 것은 교사와 아이들의 만남이 예술적인 요소로 가득 차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교사가 개별 아이와 어떤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의 많은 부분이 직관적으로, 거의 본능적으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묘사를 해봅시다. 예를 들어 어떤 아이를 교육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주는 모든 상, 불러일으키려고 애쓰는 모든 인상, 전달하고자 하는 모든 사고가 아이의 머릿속에서 너무나 강하게 순환하고 신경 체계에 문

* 1922년 영국 옥스퍼드Oxford 강연. 〈Die Geistig-seelischen Grund-Kraefte der Erziehungskunst〉 (GA305) 〈The Spiritual Ground of Education〉

제를 일으켜서 우리가 주는 모든 것이 아이의 머리에서 신체조직의 나머지 부분으로 전달될 수 없는 어려움이라고 해봅시다. 이것은 아이 머리의 신체 조직이 부분적으로 우울질이 된 것입니다. 아이는 보고 느끼는 등의 경험을 머리에서 유기체의 나머지 부분으로 넘겨주기를 어려워합니다. 배우는 것이, 말하자면 머리에 박혀 버려 유기체의 나머지 부분으로 관통해 내려가지 못합니다. 교육 예술가는 본능적으로 그 아이와 하는 모든 활동, 특히 예술적 작업에서 이런 상황을 명심할 것입니다. 저에게 만일 그런 학생이 있다면 그림 그릴 때 다른 아이들과 아주 다른 방식으로 색채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이것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발도르프학교에서는 입학 초기부터 색채 요소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입니다. 나는 이미 회화의 원리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회화 수업을 할 때 교사는 모든 아이를 개별적으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와 개별적으로 작업할 기회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모든 것을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옥스퍼드 강연, 여섯 번째 강의)

마지막 인용문의 완전한 배경은 같은 강연의 이어지는 장을 보면 알 수 있다. 다음 단락은 옥스퍼드 강연에서 지리 수업 중에 그린 지도를 보고 슈타이너가 한 말이다.

“배움에 있어서 처음 출발한 원리가 생명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아이들은 온전하게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있는 지도들에서 그것을 아주 잘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아이들은 색채를 경험합니다. 그것은 영혼의 경험입니다. 색채 경험은 아이들에게 영혼의 경험을 전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영혼으로 경험한 그리스를 보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색채 요소 속에서 편안함을 느낄 때, 지리에 대한 느낌을 발달시키면서, ‘나는 크레테 섬, 칸디아 섬을 특정한 색채로 그릴 거야, 소아시아의 해안선은 이렇게, 펠로폰네소스는 저렇게 그릴 거야’ 라고 느낍니다. 아이들은 색채를 통해서 말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로 인해 지도는 사실상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온 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칸디아나 크레테 또는 펠로폰네소스 또는 그리스 북부를 그릴 때 내면에서 이런 식으로 색채와 함께 어우러지는 느낌을 가졌을 때 지구를 어떻게 경험할지 생각해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 그 자체가 아이들 영혼 속에 살아나게 되고, 아이들은 그리스를 자신의 영혼에서 새롭게 일깨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의 살아있는 실재가 인간 존재의 일부가 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 아이들 앞에 일상의 건조한 실재를 제시하더라도 아이들은 그에 대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신들이 그렸던 단순한 그림에서 색채 요소를 예술적이며 살아있는 방식으로 경험했으며, 색채

언어를 사용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같은 강연, 일곱 번째 강의)

슈타이너가 언급한 (미술 교육의) 원칙은 아이들에게 먼저 색채를 내면으로 경험하게 하고, 그 색채 경험의 직접적인 결과로 형태가 나오게 하라는 것이다. 다음은 미술 수업(여기서는 분명히 9학년의 미술수업)에서 색채 사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슈타이너가 교사 모임에서 한 답변이다.

“어제 색채의 사용에 대해 제가 직접 말한 것을 가지고 아이들을 만날 수는 없겠습니까?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현대 역사와 관련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색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에 대해 했던 저의 말은 특히 여러 차례 수업의 주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르나흐에 부탁해서 제가 이 주제에 관해 말했던 것을 여기로 보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선생님이 이 학급(9학년) 아이들과 함께 곧바로 색채의 실용적인 사용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로써 그들은 저학년 때 했던 것을 의식하게 됩니다.

물론 수업 방법론 측면에서 앞으로 많은 부분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고, 이것은 이미 해당 수업에서 시작한 것과,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끌어 온 것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단지 곡선 소묘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방법론을 색채에도 사용할 수 있

습니다. 예를 들어 곡선을 가지고 할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둥글고 선명한 형태를 지닌 파란 점과 뚜렷한 경계 없이 꼬리를 끌며 지나가는 노란 곡선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너무 빠른 시기에 해서는 안 됩니다. 저학년에서 색채는 완전히 시각에서 살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비교 해부학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전면부와 후면부의 양극성을 대비시키십시오. 어떤 동물의 감각 지각 능력 및 느낌과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을 대조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같은 범주에 속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은 삶과 실재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방법론이 모든 분야의 수업에 도입되어야 합니다.” (1922년 10월 15일)

나는 색채의 실용적인 사용에 대한 이 말을 미술 과목 교사들을 대상으로 했는지 아니면 공예 교사들을 대상으로 했는지는 알 아내지 못했다. 이 문단의 두 번째 부분은 의심할 바 없이 상급과정의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한 말이다. 다시 한 번 1920년 강연의 수 수계끼를 만나게 된다.

1923년 도르나흐 강의에서는 색채 원근법과 선 원근법에 대한 놀라운 언급을 한다.

“그렇습니다. 일단 교육에 대한 이런 관점이 몸에 배게 되면, 다른 유용한 도움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학급에서 아이들에게 제시하는 것은 무엇이든 서로 연관성을 지녀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야 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들이 자신의 상을 형성하는 힘을 이용해서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이런 저런 것을 그리게 합니다. 처음에는 색연필이 아니라 물감으로 그림니다. 교사는 곧 아이들이 얼마나 깊이 색채 세계 속에 거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면, 차츰 아이들은 멀리 있는 것을(우리를 머나먼 곳으로 데리고 나가는 것을) 파랑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당연히 교사 역시 파랑의 이런 특질을 경험했어야 합니다. 반면 노랑과 빨강의 본성은 관찰자를 향해 앞으로 전진 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고정된 소묘 또는 회화 훈련으로 괴롭힘을 당한 적이 없다면, 아이들은 이미 7~8세에도 이를 아주 구체적인 방식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만일 아이들에게 말이나 나무를 사실적으로 따라 그리도록 강요했다면, 이 색채 경험은 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반면 아이들을 잘 이끌어서 ‘내가 손가락을 어디로 움직이든지 색깔이 따라올 거야(어떤 재질의 색깔을 쓰느냐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가 됩니다)’, 또는 ‘색깔은 내 손가락 아래에서 정말로 살아나기 시작해, 색이 좀 더 번지기를 원해’라고 느끼게 한다면, 그런 감정을 아이들의 영혼 속에서 끌어낼 수 있을 때마다, 아이들에게 아주 근

본적이고 중요한 어떤 것, 즉 색채 원근을 발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노랑과 빨강은 자기를 향해 가까이 다가오는 느낌을, 파랑과 보라는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이후의 단계에 도입해야할 선 원근법을 위한 토대를 살아있는 방식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강력한 내적 색채 원근을 경험하기 전에 먼저 선 원근법을 소개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해롭습니다. 색채 원근의 내적이고 질적인 원근을 경험하지 못한 채 양적인 원근을 받아들이도록 가르치는 것은 아이들을 피상적으로 만드는 해로운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더 깊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색채 원근에 대한 강렬한 경험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면, 아이는 결코 읽기를 빠르고 쉽게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어제 이야기 했던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물론 읽기가 아이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전달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색채 원근에서 아이들은 유연한 사고, 유연한 감정과 지각, 유연한 의지의 힘을 얻습니다. 아이들의 영혼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좀 더 민감하고 유연해집니다. 여러분이 회화-소묘, 또는 소묘-회화의 방법을 이용해 읽기를 가르친다면 약간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때가 되면, 읽기가 자주 그렇듯, 아이들의 부

드러온 영혼재질에 상처를 내는 것처럼 너무 느슨하거나 너무 단단하게 닦을 내리지 않고 모든 문자는 올바른 방식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읽기가 신체 속으로, 아이의 전 존재 속으로 너무 피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각각의 분리된 글자 형태를 인간의 사회적 존재 속에 분열이 생기게 하는 방식으로 전달함으로써 아이 안에 지나치게 깊이 들어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1923년 도르나흐 강연, 다섯 번째 강의)*

다음은 1923년 4월 25일, 천문학에 대해 이야기한 다음 언급한 것이다.

“아이들에게 자연의 분위기를 그림으로 그려보게 해야 합니다. 도르나흐에 있는 (미술 학교) 학생들은 회화로 대단히 멋진 작업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일출과 일몰의 차이를 그림으로 그려보게 했는데, 몇몇이 그 과제를 아주 탁월하게 소화했습니다. 이런 차이를 배워야 하고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 합니다. 비 오는 숲속의 분위기는 14~15세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연습입니다.” (1923년 4월 23일)

* 1923년 4월 15일~22일, 스위스 도르나흐Dornach 강연. (GA306) <The Child's Changing Consciousness>

다음은 8학년 수업을 참관하고 한 말이다.

“8학년들의 수업을 살펴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수채화로 그림을 그린다면 종이를 팽팽하게 펴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작품이 엉망이 될 것입니다. 아이들은 종이를 제대로 펼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팽팽하게 펼친 종이에만 그림을 그리게 하십시오. 이런 준비에 시간이 조금 소요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연습 공책에 하는 작업은 아이들 안에 사고를 자극할 수가 없습니다.*. 풀을 이용해서 종이를 올바르게 펴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잘 펼친 종이에 물로 희석한 물감을 사용하게 하십시오. 아이들은 너무 빨리 칠하고 함부로 작업합니다.” (1923년 7월 3일)

슈타이너는 교육부 장관을 면담한 다음 이렇게 보고했다.

“저는 교육부 장관에게 우리가 교과과정을 충분히 개발하고 난 다음에, 뒤러의 <멜랑콜리아I>을 기초로 한 자유 소묘 수업방법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그림에는 온갖 다양한 명도의 빛과 어둠이 담겨있으며, 색으로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그림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분명히 그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을 것

* 관련 자료를 읽어보면 당시에는 공책에 수채화를 그린 것 같다.

입니다.” (1923년 7월12일)

1923년 7월 12일에는 이렇게 말했다.

“한 가지 저를 괴롭히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공책에 수채화를 그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아주 대충대충 하는 태도가 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팽팽히 펼친 종이에 그림을 그릴 때만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수채화 판은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것을 사다 쓸 수는 없습니다. 매끈하게 사포질한 나무판이라면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수채화 종이를 펼쳐 놓고 쓸 매끈한 나무판을 아이들이 공방에서 만드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일반적인 공책에 그림을 그리게 하는 방법은, 만족스런 결과를 내고 있지 않습니다. 수채화를 할 때는 종이를 펼쳐놓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923년 7월 12일)

회화와 소묘 수업의 또 다른 측면을 일클리 강연의 네 번째 강의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바라보고, 머리를 바라봅니다. 머리에서 치아를 형성하던 힘이 자유로워지면 사고의 힘이 됩니다. 그런 다음 아래쪽으로, 말하자면 말하기 쪽으로 내려가면서, 치아가 더 이상

직접 관여하지 않는 모든 과정이 일어납니다. 이제는 에테르체가 그 책임을 떠맡았기 때문입니다. 치아는 말하기에 도움을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사고와 치아의 관계는 여전히 뚜렷이 드러납니다. 어떻게 ‘치음(이를 발생기관으로 내는 소리)’이 사고 과정 속으로 들어오는지를 이해하면, 우리는 치아가 수행하는 과제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어떻게 우리가 치아를 이용해서 d 또는 t 같은 소리를 만드는지, 그리고 구체적인 사고 요소를 말하기 속에 어떻게 가져오는지를 알게 됩니다.” (일클리 강연, 네 번째 강의)

1923년 8월16일 강의에서는 조형작업과 신체적 시각 능력 사이의 중요한 관계에 대해 말한다.

“따라서 발도르프 교육의 원리에 따라 우리는 회화와 소묘 수업을 아동기의 아주 부드러운 연령부터 시작합니다. 조소 역시, 비록 9세 또는 10세부터 그것도 아주 초보적인 방식일지라도, 가능한 한 많이 연습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적절한 나이에 조형적 형태와 형상을 빚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아이들의 신체적 시각과 함께 시각에 내재된 영혼의 특질을 놀라울 정도로 활성화하는 효과를 갖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변 사건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보는 법

을 배운 이후에야 세상 속 우리의 진정한 자리에 올려놓는 방식으로 보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 올바르게 관찰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싶다면, 아이들을 가능한 한 일찍 조소 활동에 참여하게 하면서 눈으로 본 것을 머리와 눈에서 손가락과 손의 움직임 속으로 들어오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아이들에게 주변 환경에 대한 예술적 안목 - 예를 들어 방의 가구 배치 같은 것-과, 예술적이지 못한 것에 대한 혐오를 일깨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들은 세상 속에서 인간의 심장과 영혼 속으로 흘러 들어와야 마땅함(마땅히 흘러들어오는) 것들을 관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같은 강연, 열한 번째 강의)

음악 수업에 대한 언급 이후에 이어서 말한다.

“**광물계**는 인과관계를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은 이런 식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계에 있어서는 논리와 이성 또는 지성만으로 전부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인간 존재의 조형적 능력이 함께 활동해야 합니다. 개념과 사고가 그림(상)으로 전환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안에 발달시키려는 모든 조형능력은 아이가 식물의 형성력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같은 강의)

1924년 2월 5일 상급과정의 회화 수업에 대한 공예 교사의 발

언 이후에 긴 토론이 이어졌다. 그 교사는 저학년을 위한 회화 기법에 대해서도 물었고, 이에 대한 슈타이너의 대답은 회화 수업의 모든 측면을 담고 있다. 이 수업은 안타깝게도 저학년처럼 정기적으로 다루어질 수 없었다.

“**회화** 수업을 몇 년 동안 중단하고, 조소 수업으로 대체한다고 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실 담임과정에서 진행되었던 정기적인 회화 수업은 그 이후에도 무의식에서 계속 진행됩니다. 그리고 중단되었던 회화 수업을 재개하면 아이들은 보다 살아있는 방식으로, 그리고 기술적으로 훨씬 성장한 상태로 그림을 그립니다. 능력에 의존하는 모든 일은 언제나 일을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했을 때 뚜렷이 성장하곤 합니다. 이는 그 활동을 한 동안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저학년 회화 수업은 아직 개선될 부분이 있습니다. 몇몇 교사는 기술적 숙련도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재료도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림을 그리기에 앞서 종이를 팽팽하게 펼치게 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종이 표면이 매끈하고 고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아이들에게 그림을 (중간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려서 하나의 완성 단계를 보여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그림이 그저 시작 단계에서 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업에서 달성하고자 하는 것의 성패는 기술적인 부분, 재료 다루는 방법 등을 동료들과 얼마나 잘 토론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여러분은 필요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훈련받은 화가이기 때문입니다. 이보다 더 실용적인 해결책은 없습니다.

제일 높은 두 학년(당시 11학년과 12학년)에서 재능 있는 아이들에게 다시 회화를 시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아주 단순한 과제에서 시작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전적으로 예술적인 원리를 따라 가게 한다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아래 학년의 경우에는 그림을 감정 영역에서 창조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지만, 청소년들은 보다 객관적인 예술의 측면(회화의 관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빛이 사물에 떨어졌을 때 즉각 예술적인 효과를 창조한다는 등의 사실에 아이들이 주의를 기울이게 해야 합니다. 모든 그림을 실용적인 관점에서 그려야 합니다. 10살 이후에는 아이들이 회화에서 외부 사물을 그리는 것을 결코 장려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연습은 해로운 결과를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슈타이너는 색분필로 칠판에 그림을 그린다.)

아이들이 클수록 회화의 관점에서 작업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십시오. 여기에 태양이 있습니다. 태양빛이 나무 위에 떨어집니다. 이렇게 나무의 형태를 소묘하는 방식이 아니라 밝고 어두운 면을 칠하는 방식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무가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의 만남에서, 햇빛이 떨어진 결과로 생기는 밝고 어두운 색에서 서서히 생겨나게 합니다. ‘나무는 초록이다’ 같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이 초록으로 잎사귀를 칠하게 하지 마십시오. 아예 나뭇잎 자체를 그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다양한 색조를 가진 빛의 면을 그립니다. 이를 철저하게 고수해야 합니다.

만약 13~14세 아이들과 시작해야 한다면, 저는 뒤러의 <멜랑콜리아I>을 빛과 그림자가 멋지게 사용된 사례로 이용할 것입니다. 창문에 어린 빛을 색으로 표현해보게 하고, 그 빛이 다각형과 공에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그려보게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서재의 성 히에로니무스>에 나오는 창문의 빛을 그려보게 하는 식으로 진행할 것입니다. 뒤러의 <멜랑콜리아I>로 시작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 흑백 그림을 색채 상상력을 이용해서 변형시켜야 합니다.

모든 교사가 숨쉴 좋은 화가이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회화를 잘 하지 못해서 회화에 특별히 관심이 없는 교사들도 있을 것

입니다. 하지만 교사는 자신이 직접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수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아이가 예술과 과학의 모든 분야를 완벽하게 숙달하는 것 역시 기대하면 안 됩니다.” (1924년 2월 5일)

이 문단이야말로 회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여기서는 슈타이너가 저학년 학생들의 회화에 대해서 언급하지는 않지만, 다른 강의에서 자주 언급했다. 1920년 11월 15일 교사들과의 모임*에서 했던 얘기가 특히 중요하다. 이 모임에서 슈타이너는 색채의 감각-인상, 즉, 외부 사물을 전혀 베껴 그리지 않고 색깔을 배치하는 방법으로 시작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한다. 1학년에서 회화를 이런 식으로 도입하는 것 역시 아이들에게 외부 사물을 그리게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근거한 것이다. 슈타이너가 ‘충분히 노력하고 시도해보지 않았다’고 교사들을 질책한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일 것이며, 물론 아이들이 종이를 제대로 펼치지 않고 그림을 그린 것 때문이기도 하다.

자신의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그리는 자유 회화는 더 어린 아이들에게 적합하다. 어린아이들의 그림에서 어떤 장면이나 형상, 사물

* 주(10) 참조

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는 외부 세상을 베껴 그린 것이 아니라 내적 ‘영혼-공간’의 상이다. 하지만 먼저 ‘색채 언어’를 만나게 한 다음에, 이런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큰 아이들과의 수업에서는 화가(회화)의 관점을 제시해야 한다. 이 단계가 무엇인지는 슈타이너가 그렸던 〈하얀 햇살 속의 나무〉를 생각해 보면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슈타이너는 오직 빛과 그림자(어둠)만으로 그려야 하며, 그 속에서 나무의 형상이 조금씩 종이 위에 자라나야 한다고 했다. 이것이 바로 단순히 ‘사물인 나무’를 그리는 것과 다르게 ‘화가의 관점’으로 그리는 것이다. 따라서 크게 두 가지 단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10세 이하의 아이들

‘색채 언어’, 외부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을 베껴 그리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경험한 장면이 드러나는, 색채에 대한 느낌에서 나온 그림.

10세 이후

한 동안 중단되었다면 회화 수업 재개. ‘화가의 관점’에서 그리기. 어떤 외부 사물 주제도 주어서는 안 되며, 외부의 색채 세상을 빛과 그림자(어둠)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

이를 보면 아이들에게 일깨워야 하는 색채에 대한 내적인 경험

이, 빛을 받고 있는 외부 자연 속 색채 경험으로 발전해나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훈련을 전혀 받아본 적 없는 13, 14세 아이들에게 처음 회화를 도입해야 한다면, 뒤러의 <벨랑콜리아I> 연습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이 나이에는 더 이상 색채의 내적인 '공간-창조' 경험에 호소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다. 반면(또한) 아이들은 아직 전적으로 빛을 받는 사물에 드러나는 빛과 어둠의 색조를 관찰하고, 거기서 그림을 창조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이럴 때 원근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질문을 자극할 수 있는 예로 뒤러의 <벨랑콜리아I>을 준다.

아른험 강연*에서 슈타이너는 아이들이 가진 타고난 환상의 힘을 육성하는 방법에 대해 말하면서, 소묘 요소를 회화에, 역으로 회화 요소를 소묘에 도입하라고 한다. (회화-소묘, 소묘-회화)

“우리는 결코 처음부터 아이들에게 쓰기를 가르치지 않으며, 아이들이 소묘하면서 회화를 하고, 회화하면서 소묘하게 합니다. 심지어 아이들이 지저분하게 물감을 튀기도록 허락해야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때로는 그 수업 후에 교실을 치우는 귀찮은 일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화, 소묘와 별개로, 우리는 아이들에게 자신의 내적 존재가 만들고자 하는 것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각자의 방식으로 조소를 연습하게 내버려둠으로써 예술 영역 속으로 가능한 한 깊이 들어가게 안내합니다.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옵니다. 좀 큰 아이들의 경우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른험, 세 번째 강의)

슈타이너는 인류학 수업이 어떻게 아이들 안에 형상을 빚고자 하는 욕구를 자극할 수 있는지를 설명한다. 이것은 대단히 흥미로운 지점으로 나중에 꼭 그 세 번째 강의를 읽어보기를 권한다.

토키 강연에서 슈타이너는 어떻게 아이들을 8세부터 이미 색채 조화를 경험하도록 이끌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아이들과 어떤 연습을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먼저 빨강으로 뭔가를 그립니다. 이제 아이의 느낌을 불러일으키면서 그 빨간 면 옆에 초록 면이 오는 것이 아주 조화롭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물감으로 해야 훨씬 쉽게 보일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 과정을 거꾸로 해볼 거라고 설명합니다. ‘나는 여기 안쪽에 초록을 칠할 거야. 그러면 너희는 그 주위에 무엇을 칠하겠니?’ 그러면 아이들은 초

* 1924년 7월 17~24일, 네덜란드 아른험(Arnhem) 강연(총 10회) (GA 310) <Human Values in Education>

록 주변에 빨강을 칠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여러분은 조금씩 색채 조화를 느끼도록 안내합니다. 아이들은 먼저 중앙에 빨간 면을 칠하고 그 주위에 초록을 칠한 것을 보았습니다.(첫 번째 그림) 하지만 빨강이 초록이 되었다면, 이제 초록은 빨강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 나이, 즉 8세가 되어가는 나이의 아이들이, 이런 색채와 형태의 조화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합니다.”(토키, 네 번째 강의)

위의 기본 색채 조화 연습을 보면 슈타이너가 바라발의 책에서 말하는 기하학적 형태를 보는 방식을 색채와 다양한 색조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말한 의미를 알게 된다. 더불어 같은 토키 강연에서 슈타이너는 왜 아이들이 조형적 형상을 만들고 싶은 강한 욕구를 갖는지를 설명한다.

“우리는 인간 에테르체의 독립적인 활동이 이갈이를 할 때야 진정으로 시작한다는 것을 사고로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첫 7년 동안 에테르체는 할 수 있는 모든 독립적인 활동을 두 번째 물질 육체를 형성하는 일에 내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에테르체는 처음 7년 동안 아이 안에서 탁월한 내적 예술가가 됩니다. 그것은 형태를 만드는 자이며, 조각가입니다. 그러다가 에테르체가 물질 육체에 사용하는 형태를 만드는 힘은 7세 무렵 이갈이와 함

께 해방되고 자유로워집니다. 그런 다음에는 영혼의 활동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바로 이 때문에 아이는 형태를 조소하거나 그림을 그리려는 충동을 갖는 것입니다. 인생의 첫 7년 동안 에테르체는 물질육체 안에서 조소와 회화를 수행해왔습니다. 이제 이것은 물질육체에 관해서는 더 이상, 또는 적어도 지금까지 정도의 할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외부에서 활동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교사로서 인간 유기체에서 일어나는 형태에 대한 폭넓은 앎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어떤 종류의 형태를 아이가 조형재료로 빚고 싶어 하는지 또는 색채로 그려보고 싶어 하는지를 안다면, 여러분은 아이들을 올바르게 안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 인간 유기체에 대한 예술적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같은 강연, 여섯 번째 강의)

이 강의의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에 슈타이너는 소묘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말한다. 소묘가 우리 시대에 광학에 대한 잘못된 접근으로 인해 지나치게 과대평가 되는 경향을 지적하고 있다.

“예술적 느낌으로 여러분은 외부에 진정으로 존재하는 것을 흑백 또는 색채로 작업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 선은

저절로 드러날 것입니다. 오직 빛과 그림자 또는 색채에서 생겨나는 경계를 따라갈 때만 ‘소묘의 선’이 드러납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소묘 지도는 소묘 그 자체가 아니라 색채 또는 빛과 그림자를 이용한 회화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소묘 수업은, 그것(소묘)이 우리에게 전혀 실재하지 않는 것을 주고 있음에 대해 완전히 인식하고 수행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지닙니다. 소묘를 지나치게 중시하면서 우리 사고방식 속에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오류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광학에서 발견하는 모든 것, 예를 들어 사람들이 해의 빛살(광선)을 그린다면서 끝없이 소묘 선을 긋는 것과 같은 일이 자라났습니다. 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그런 빛줄기(광선)를 볼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현실에서 갖는 것은 상(그림)입니다. 여러분이 벽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을 통해 햇빛이 비쳐 들면, 칸막이 위에 상이 형성됩니다. 이럴 때 혹시라도 방에 먼지가 떠다니고 있으면 빛살이 보이기도 합니다. 먼지가 많으면 많을수록 빛살이 더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흔히 선으로 그리는 것은 단지 상상일 뿐입니다. 사실 선으로(소묘로) 그린 모든 것은 생각으로 만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추상적인 설명 방식과 관련 있는 원근법 같은 것을 가르치기 시작한 다음에야, 여러분은 가

장자리와 윤곽을 선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토키 강연, 질의응답)

이처럼 토키 강연에서 우리는 회화, 소묘, 조소 수업을 위한 중요한 지침을 찾을 수 있다.

미술 교과과정 제안

다음은 슈타이너가 교과과정 강의*에서 제안한 1~8학년 미술 교과과정을 요약한 것이다.

“**저학년**에서 쓰기 수업을 위해 먼저 소묘를 시킨 다음에 6학년까지 기하학적 형태, 즉 원, 삼각형 등등을 소묘에서 도출해 냈습니다. 그 다음에 쓰기 수업을 위해서 했던 소묘에서 차츰차츰 더 복잡한 형태들을 발달시켰습니다. 형태 그 자체를 위해서, 소묘 자체를 위해서 그 형태들을 그렸습니다. 회화적인 것 역시 그림 자체를 위해서 그리도록 합니다. 4학년에서 소묘와 그림 수업을 이 영역으로 이끌어 갑니다. 소묘에서는 원이 무엇인지, 타원형이 무엇인지 등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소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가르칩니다. 그에 더해서 소조용 유토油土를 이용해서 역시 조형적인 형태를 만들어보는 식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소조용

* <교육예술 3: 세미나 논의와 교과과정 강의> 마지막에 수록된 세 번의 교과과정 강의

유토가 있다면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다면 다른 재료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형태 관조를, 형태 감각을 익히기 위해서라면 개뿔이라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저학년 기간 동안 소묘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합니다. 일단 어린이에게 둥근 형태, 모난 형태 등에 대해 일정한 느낌을 가르칩니다. 이 형태들에서 우리가 쓰기 수업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발달시킵니다. 이 기본적인 소묘 수업의 초기에서 우리는 사물의 모방을 완전히 피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한 처음에는 의자나 꽃 아니면 다른 어떤 사물이건 간에 모방해서 그리기는 될 수 있으면 시키지 마십시오. 그 대신에 가능한 많이 선의 형태 자체에서 그림이 생겨나도록 합니다. 둥근 모양, 각진 모양, 반달 모양, 타원형, 곱은 모양 등등. 어린이 내부에 원의 만곡과 타원형의 만곡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에 대한 느낌을 불러일으키십시오. 간단히 말해서 모방해서 그리려는 본능이 깨어나기 전에 형태감을 먼저 일깨우십시오! 나중에 어린이들에게 모사하기를 시킬 때 형태 내에서 다루었던 것을 적용합니다. 어린이에게 먼저 각을 그리도록 시켜서 그 형태 내에서 각을 파악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의자를 보여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좀 봐라. 여기에 각이 있다. 여기에도 각이 또 하나 있다.” 어린이 내면에

서 내적인 느낌으로 그 자체로서의 형태를 다루기 전에는 어린이에게 모사하기를 절대로 시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 다음에는 형태를 모사시킬 수 있습니다. 소묘와 회화뿐만 아니라 조형적인 것을 좀 더 독자적으로 다루기 시작하는 경우에도 역시 그런 방식을 고수합니다.” (《교육예술 3》, 두 번째 교과과정 강의)

“6학년에서 간단한 투영, 사영을 소개하십시오.자와 컴퍼스 등을 이용해도 좋고 손으로 직접 그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원주가 있고 여기에 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를 빛으로 비추면 구의 그림자가 어떻게 보이는지, 어린이에게 그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가르치고 그대로 따라서 그리도록 합니다. 그대로 모사하는지 유의해야 합니다. 그림자가 어떻게 지는지! 간단한 사영을 6학년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림자가 평면에 지는지, 곡면에 지는지, 다소간에 평평한 사물의 그림자인지 아니면 입체적인 사물의 그림자인지, 어린이가 그에 대한 표상을 얻고 모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6학년에서 기능적인 것이 어떻게 아름다움과 연결되는지를 어린이가 배워야 합니다. 말하자면 의자가 기능적으로 그 용도에 적합한 동시에 어떻게 아름다운 형태도 지닐 수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어린이가 얻어야 합니다. 기능성과 미의 결합을 어린이에게 깊이 새겨 주어서 어린이가 문자 그대로 그것을 파악하도록 해

야 합니다.”(같은 강의)

위에 인용한 내용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슈타이너가 1921년 1월 16일 교사들과의 만남에서 한 말을 함께 인용하겠다. 한 교사가 6학년에서 투영 기하학을 예술적으로 도입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기하를 통해 도입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질문했다.

“가능하다면 순수하게 기하학(적인 것)과 예술 사이에 일종의 다리를 놓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예술을 통해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중심(원뿔) 투영법입니다. 아이들은 원뿔의 그림자가 평면 위에서 어떻게 되는지 정말로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그에 대한 내적인 상을 가져야만 합니다.”(1921년 1월 16일)

이 발언에서 다음의 질문이 제기되었다. “교사가 ‘광선’, 또는 ‘그림자 선’ 같은 용어를 사용해도 됩니까?” 슈타이너는 대답했다.

“이것은 좀 더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투영 기하학에 실재하지 않는 것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광선’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그림자 선’은 더욱 그러합니다. 투영 기하학을 가르칠 때 그런 개념을 사용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보다는 공간적 형태를 가지고 수업해야 합니다. 광선이나 그림자 선은 존재

하지 않지만, 원기둥이나 원뿔은 존재합니다. 그림자는 원뿔을 각 위에 놓고 한 점의 빛으로 그것을 비추어서 적절하게 각진 면 위에 그림자가 지게 하면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림자 형상’이 생깁니다. 그렇게 생긴 그림자 형태가 그림자의 가장자리 선이고, 아이들조차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아이들이 투영 기하학에서 원통이 그보다 직경이 작은 다른 원통을 관통할 때 어떻게 되는지를 배울 때 알게 되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것이 예술 감각을 훼손시키지 않을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을 예술 속으로 안내합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상상을 유연하게 만듭니다. 만일 여러분이 두 개의 원기둥이 서로 관통할 때 어떤 단면이 생기는지를 당연하게 알고 있다면 상상의 힘이 유연해질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추상적 개념으로 가르치지 마십시오.”(1921년 1월 16일)

“7학년에서는 관통과 관계하는 모든 것을 다루어야 합니다. 간단한 실례를 들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원주가 하나 있다. 이 원주를 말뚝으로 관통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말뚝이 원주를 관통해서 걸려 있도록 해야 한다.’ 말뚝이 원주를 관통할 때 그것이 들어가는 곳과 나오는 곳에서 생기는 절단면이 어떤 모양으로 되는지 보

여주어야 합니다. 어린이가 그런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입체나 면들이 서로 뚫고 관통하면 무엇이 생기는지, 그런 것을 어린이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난로 연통이 위에 있는 천장을 수직으로 뚫고 들어가는 경우와 비스듬하게 뚫고 들어가는 경우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절단면이 전자의 경우에는 원이 되고, 후자의 경우에는 타원형이 됩니다. 그에 더해서 이 학년에는 어린이가 원근법에 대한 올바른 표상을 배워야 합니다. 멀리 있는 것은 작게,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그리기, 서로 겹쳐져 있어서 가까운 것이 멀리 있는 것을 가리도록 그리기 등등. 그러니까 간단한 원근법적 소묘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다시금 기능성과 미의 결합을 다룹니다. 어떤 돌출물이 건물의 벽을 부분적으로 가리고 있으면, 과연 그것이 아름다운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표상을 어린이 내면에 불러일으켜야만 합니다. 그런 돌출물이 벽을 아름답게 가릴 수도 있고 아름답지 않게 가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7학년이 된 어린이에게, 그러니까 열서너 살 된 나이에 그런 주제를 가르치면 매우 큰 영향을 줍니다.

8학년이 되기 전에 그 모든 것을 예술적인 수업으로 고조시킵니다.”(《교육예술 3》, 두 번째 교과과정 강의)

8학년까지 예술 수업은 담임교사가 이끌어온다. 9학년부터는 회화, 조소, 소묘가 공예 수업의 한 부분으로 진행된다. 수업에서 아이들은 조소를 연습하고, 다양한 수공예 물품을 만들고, 흑백 소묘를 배우고, 나아가 간단한 목공 작업과 수채화를 연습한다.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공예 과목에 대한 장을 참고하라.

슈타이너는 회화, 소묘, 조소 교사들에게 아주 많은 것을 기대했다. 팽팽하게 펼친 종이에 물을 섞은 물감으로 그리는 수채화는 처음에는 주로 기법위주로 진행하지만 이를 통해 색채에 대한 경험, 색채 간의 섬세한 조화에 대한 경험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색채 조화는 첫 단계에 불과하며, 두 번째 단계는 고유한 색채 공간 또는 색채 원근을 지닌 색채의 움직임이다.

아이들의 기초 회화는 처음에는 우연으로 진행된다. 아직 온전히 색채 측면에서 그림을 구성하는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런 우연의 결과에서 우리는 아이들의 무의식의 본성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때까지 외부 사물에 의존해서 그림 그리기를 피해왔다면 첫 번째 단계에서 아이들의 그림은 오로지 색채 원근법을 통해 창조된 영혼 공간 안에 머물러 있다.

두 번째 단계에 도달하는 것은 아이들이 색채의 공간-창조 성질을 경험했고, 그래서 붓을 물감 통에 찍기 전에 이미 색채의 움직임과 그에 따른 형태를 알고 있을 때이다. 이 단계에서 교사는 외부 세상을 상징하는 주제가 아니라 느낌 영역에서 주제를 주어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4~5학년부터 목표로 삼을 수 있으며, 외부의 빛을 받는 표면에 내적 색채 경험을 더할 때 도달한다. 이 단계에서는 동화의 상으로 이루어진 상상력에서 나온 회화는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입체 사물에 대한 내적 각성을 통해 변형된다.

모든 회화에서 우리는 두 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 a) 외부 사물이 무의식적으로 지각된, 빛을 받는 영역 또는 그림자 영역으로 드러난다. 또는
- b) 내적으로 경험한 색의 움직임이 존재한다.

중간 학년의 회화 수업에서 이런 목표들을 체계적으로 달성하고, 그것이 아무리 보잘 것 없더라도 능력으로 전환되었다면, 많은 일을 해낸 것이다. 2년 동안의 휴지기 후에(9~10학년 2년 동안 중단하는 회화 수업을 이후에) 앞서 배웠던 모든 것을 이제 의식의 영역으로 옮겨 새롭게 배우게 될 것이다. (공예 수업에 대한 장을 참고하라)

조소에 대해서 슈타이너는 몇 문장 안 되는 짧은 암시와 제안만을 남겼다. 아이들은 9세 또는 10세에 조소를 시작해야 한다. 손의 빈 공간에서 형태를 형성하고, 그 결과물로 형태 자체를 위한 형태를 만들도록 이끌어야 한다. 외부 사물과의 유사성은 오직 형태가 완성된 이후에 드러나야 한다. 슈타이너는 인간 장기의 형태를 진정으로 이해하면 아이들 안에 조소에 대한 욕구가 일깨워지지만, 외부 형태를 모방하지는 않을 것이라 했다. 소묘는 다른 과목으로 계속해서 이어진다. 처음에는 간단한 형태 소묘에서 쓰기로 연결된다.(1학년) 대칭과 그에 준하는 연습들은 공간 의식을 발달시키고 마침내 기하로 이어진다. 기하는 4학년에서 기하 형태를 정확히 소묘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6학년부터 기하 작도는 기하 증명으로, 그러다가 6학년 말에는 투영 기하학으로 발전한다. 9학년에서 소묘의 영역은 엄격한 수학적 작도로 발전하고 그 과정은 상급과정 내내 계속된다.

10학년 측량 수업에서 지도 그리기를, 11학년에서는 지리 수업의 일환으로 지도 투영법을 배우며 이것이 이 과목의 마지막 분야이다.

회화, 조소 소묘 수업의 목표와 내용

학년	?	회화	조소	소묘
1	·형태의 내적 법칙에 대한 느낌 육성. ·하지만 단순한 모방은 절대 금물.	·쓰기를 돕기 위한 색채와 형태. ·외부사물은 모방하지 않으며, 형태를 재창조한다. ·색채 공간과 색채 원근, 색채 움직임, 색채 구성에 대한 내적 느낌(색채 조화) ·색채 구체화시키기. ·사물 주제 이용하지 않음. ·영혼-공간에서 창조하기.		·쓰기 학습을 위한 연습으로 단순한 문양 소묘(형태그리기) ·대칭을 비롯한 공간 관계성. (앞서 그렸던 것 모사하기) ·삼각형은 상대적으로 빨리
2				
3				
4				
5		·회화의 근본 법칙에 대한 느낌을 일깨우기. ·주의: 외부 사물은 결코 모방하지 않는다. 오직 색채-영역에서 생겨난 것만 그림이 되게 한다. · 8학년 까지 특별한 과제: 뒤러의 <멜랑콜리아1> 흑백그림을 색채 그림으로 전환시키기. <서재의 성 히에로니무스>	·9~10세 아이들의 조소 수업은 주요수업 범위 안에서. ·손바닥의 빈 공간과, 눈을 통한 의지로 형태 경험하기.	기하로 점진적 전환(묘사하기)
6				
7				
8				

9	공예 수업의 일환으로 흑백 소묘(회화 수업 없음)	공예 시간에 자유 형태 조소	* 수학 수업에 도형 기하
10			· 10, 11학년: 측량 시간에 지도 그리기
11	공예 수업에서 다시 수채화 재개: '가장 단순한 것으로 다시 시작하라, 단 회화의 관점에서' 즉, 색채 원근과 색깔 면을 통한 공간 창조를 말한다.		지리 수업에서 지도 투영
12			